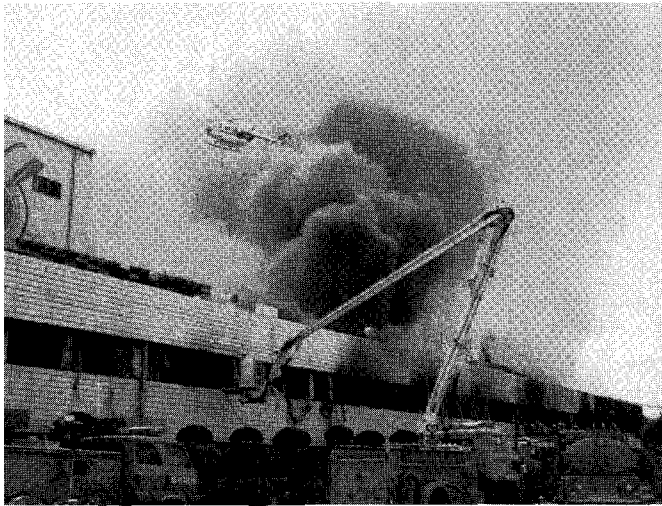


## 육계업계와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 지난 12일 동양최대규모의 익산 하림도계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에 위치한 (주)하림 도계장에서 화재가 발생, 도계장과 냉동창고 등을 태우고 11시간만에 진화되었다. 화재원인은 냉동창고로 진입하는 중앙통로 천정에 설치된 전기배선에서 합선으로 인해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도계장은 1991년 3월, 1일 30만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도계공장으로 위용을 자랑하였고, 국내 25%의 닭고기를 처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관련인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주)하림은 지난 1978년 종계

사육을 위한 황등농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육계산업에 뛰어들었으며, 이후 1991년 도계장을 건립하고, 1997년 육가공공장 설립 등 신선육 및 육가공품 생산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을 넓혀가며, 육계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오고 있다.

화재를 입은 도계장은 화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상금액이 195억 원에 불과하고, 건물피해, 영업손실, 사육농가 피해 등 4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하림측은 예상하고 있어 정상화시키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하림은 긴급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전라북도에서 익산시, 하림과 함께 양계농가지원반, 하림 지원반, 북구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하림 화재대책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계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위로성금 등이 이따랐으며, 전라북도에서 북구비 지원을 긴급 모색하는가 하면 정부에 특별 지원요청을 하였고 해당 지역에서는 하림제품구매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하림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업체들도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개

최, 일시적으로 일일 10만수 정도의 도계 및 부분육작업 지원에 나서는 한편 13일부터 하림생계 우선 구매에 돌입하되 향후 하림의 생계를 구매, 도계육을 공급하는 방안을 하림과 상의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화재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하림은 지역 양계농가 피해 방지 및 원활한 닭고기 공급을 위해 경북 상주 하림천하에 5백여명의 직원을 교대로 투입하여 하루 평균 30만수 가까이 닭고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인근 도계장인 군산의 동우 등 임도계 업체를 통해 8만수의 닭을 처리를 하는 등 당초 우려와는 달리 닭고기 공급에 큰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있으나, 하림사육농가들은 출하지연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은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을 완전히 새롭게 신축하는데 3백67억원의 건축비와 기계 설비에 3백60억원이 소요되는 등 모두 7백2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기관 용자와 보험 그리고 자체 자금 및 정부,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이번 화재로 인해 하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생산과잉에 따른 육계업의 불황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롭게 신축계획인 40~50만수 규모의 도계장이 건립될 경우 육계산업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생산자들은 또한 신규도계장

건립 후 현재 상주도계장 35만수를 합할 경우 국내 물량의 40~50%를 점유하게 되어 생산과잉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지원 등 시설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즉, 타계열업체들이 조금씩 도계처리 물량을 늘린다면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하림 계열농가들은 농가보호차원에서 하림의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는 700여 계열농가와 600여명의 공장직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농가들은 당장 출하해야할 닭들을 걱정해야 하고 차후 병아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현재는 닭고기 수급에 어려움이 없어보이지만 닭고기 수요가 많은 6·7월 여름철의 경우 종전 하루 평균 60만수 가량의 닭을 처리했던 것에 비춰볼때 현재 하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주공장 28만수와 임도계 업체를 통한 8만수 등 총 36만수에 그쳐 상당한 수급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화재사태로 인해 육계산업으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외국으로부터의 긴급 도계라인 도입, 공장신축 추진 등 분주하게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육계인들로서는 계약사육농가들의 사육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양계인들은 또한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규모확대보다는 육계인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림을 원하고 있다.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림의 재건을 기대해 본다. **양계**